

광주일자리재단, 운천호수·사직공원 상권 살린다

‘광주형 골목 경제 모델’ 업무협약 체결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맞춤형 과제 지원
김현성 대표 “지역경제활성화 출발점”



원상인회, 사직공원골목형상점가상인회와 ‘2025년 지역특화 예비 우수상권 발굴 및 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침체된 골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말 평가를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아 예비 우수상권으로 선정된 ‘서구 운천호수공원상권’과 ‘남구 사직공원골목형상점가상권’을 대상으로 한다. 재단은 올해 이들 상권에 ▲골목 활성화 중장기 전략 수립 ▲상권 브랜딩 및 디자인 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로컬 콘텐츠 개발 등 맞춤형 실행 과제를 지원해 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각 지역 상권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극대화해 ‘광주형 골목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대표는 “지난해 동구의 성공적인 변화가 올해 고도화 사업으로 이어진 것처럼 서구와 남구 역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멈춰있던 골목에 다시 사람이 모이고 이야기가 흐를 수 있도록 재단이 가장 먼저

움직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재단은 이번 서·남구 예비 상권 협약에 앞서 지난 12일 ‘광주대표 우수상권 고도화사업’의 일환으로 동구청 및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와도 협약을 마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우수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고도화’ 단계와 새로운 잠재 상권을 발굴하는 ‘예비’ 단계를 연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본격 가동되면서 광주 전역의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은솔기자

중진공 전남본부, 조선기자재 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외국인력 쿼터 확대 등 논의
우수기업 현판 수여식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일 전남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영 부담 완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모색에 중점을 뒀으며 이어진 현장 방문에서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에 현판을 전달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시장 진출을 적극 응원했다. 간담회는 ‘찾아가는 중진공’의 일환으로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사를 비롯해 전남조선해양기자재협회장 조한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기업은 대부분 선박 건조, 부품 제조기업으로 전기요금 증가에 따른 경영애로가 가장 큰 공감대를 얻었으며 외국인력 양성화 방안, E9 쿼터 향상 등을 논의했다. 중진공은 간담회에서 접수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부처 건의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진공 인력지원처에서는 현장의 인력애로 해소 및 외국전문인력사업 등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남 목포시 조선업체인 ㈜한국메이드에서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현판 수여식이 열렸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유망 중소기업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도와 중견기업으로 도약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원

정책이다. (주)한국메이드는 전국에서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 100개사 중 하나로 선박 부품, 건조, 수리가 가능한 전남의 강소 조선소다. 지난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0% 성장한 672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친환경 선박 건조 등을 추진하는 신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이어진 현장투어에서는 제1공장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사는 “전남은 국내 서부권 조선기자재 산업의 핵심 공급망이 집중돼 있는 전략적 거점”이라며 “지역 조선업체들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지속적인 동반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솔기자

GICON, 지역창업특화지원 ‘로컬의 기술’ 성료

기술·예술·시민 참여로 ESG 가치 실현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7일 ‘최근 5·18민주광장에서 지역문화호남재단과 공동으로 주최한 ‘2025 지역창업특화지원 ESG프로그램 로컬의 기술’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AI 콘텐츠 제작 기업과 예비창업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문화 향유가 결합된 융합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웹툰 제작 체험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교육이 펼쳐져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또한 지역창업특화지원 입주기업 대표와 현



직 웹툰 작가들이 협업한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는 기술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운 시도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홍보부스를 통한 창업지원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 참여형 ESG 가치 실현의 장으로 기능했다. 이경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광주의 기술, 문화, 시민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ESG 기반을 마련해가겠다”고 전했다. /안태호기자



코스피 3천 앞두고 숨고르기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한 딜러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3,000선 돌파를 시도하는 등 등등락 끝에 전장보다 3.64포인트(0.12%) 오른 2,950.30,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61포인트(0.21%) 내린 775.65에 장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한전 광주전남본부, 전력분야 집중안전점검 시행

안정적 전력공급 확보 위해 61일 간 노력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했다. 한전 광주전남본부는 17일 “지난 4월14일부터 6월13일까지 61일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함께 참여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한 재난예방 활동 기간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2025년 전력분야 집중안전점검은 사고 시 파급 영향이 큰 중요설비인 변전소(한빛원자력 S/Y 외 4개소) 및 송전선로(신광주-한빛NP 외 9개소)와 일반인 피해가

큰 중요시설 공급 배전선로(75개소), 일반인 안전사고 발생 우려 건설현장 및 사육설비(6개소) 총 96개소의 안전 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 6월11일에는 점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나주변전소내 과열진단과 같은 설비점검뿐만 아니라 사면점검, 옹벽붕괴여부 등 종합적으로 작업장 직관적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을 추가로 발굴하는 기관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뒤인 13일에는 평소 전력설비에 관심이 있는 광주전남 소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점검 참관단을 모집해 화동동 지하복합변전소 설비 점검을 참관하는 등 점검활동에 신뢰성을 높였다. 한병준 한전광주전남 본부장은 “국민 생활에 필수요소인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정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다양한 식재료를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평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1, 6일로 끝나는 날

전국최초 퓨전시장

목사고을 전통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4, 9일로 끝나는 날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5일장

영산포 풍물시장

장이 서는 날 ○ 매월 0, 5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NAJU 나주시** 광고문의 : 062)650-2099